

주간기도정보

2024. 1. 16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국회 앞 ‘反차별금지법 1인 시위’ 대장정 끝...다음세대를 이음세대로

2월 20일 다음세대를 윤리적·영적인 문제로부터 지키고자 7천인 대회 예정



매주 목요일 굿은 날씨에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 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가 지난 11일 오전 8시 ‘111 국회 앞 연합시위’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구 서울차반연, 이하 한다연)이 주관한 이 릴레이 시위는 2022년 9월부터 약 1년 4개월 동안 이어졌다. 한국교회를 이끄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비롯해 각계각층 지도자들이 대거 동참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피켓을 들었다.

릴레이 마지막 날인 이날 연합시위는 국회 6문 앞에서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3문 앞에서는 사회 명사들이 각각 나서, 다음세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나는 데 걸림이 되는 악법 폐지에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했다.

증가교회 백운주 목사(서울신학대학교 이사장)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유럽의 나라들에서 자녀의 삶과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눈으로 봤다”며 “1년 4개월간 목회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한 것이 상당히 여파가 컸고, 이번 회기에 이를 잘 막아낸 것은 한국교회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계속 깨어서 우리나라만큼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로 나아가자”고 했다.

한다연 공동대표인 옥도교회 원성웅 목사는 “이 추위에 휴전선 DMZ를 지키는 군인들을 생각한다. 휴전선이 풀리면 자유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것처럼, 영적 윤리적인 문제를 지키는 또 하나의 전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했다.

그는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동성애·동성혼이 허용되고 법제화된다면 이 나라는 무너질 것”이라며 “오는 2월 20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다음세대를 윤리적·영적인 문제로부터 지켜나가기 위한 7천 명 영성 집회를 개최한다. 엘리야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처럼 나라를 지켜내는 모임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여의도순복음시흥교회 함덕기 목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는 “이 나라가 가진 것이 많아 세계 10대 강국이 된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며 “한국전쟁 후 잿더미 속에서 한국교회는 일찍이 연합해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다. 이제는 다음세대를 위해 모여 기도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침교회 안석문 목사(한다면 상임총무)는 “마음과 뜻을 함께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7천인 대회에 함께해 달라. 다음세대를 ‘이음세대’로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해 한국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내겠다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자녀들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요한1서 4:4-5)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에베소서 6:12-13)

하나님, 한국교회가 교회와 가정, 사회와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주님을 힘입어 싸우며 지금까지 막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 진리를 대적하여 악법 제정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깨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로 영적 전쟁하게 하소서. 다음세대의 영혼과 윤리의 기준을 무너뜨리려는 치열한 도전 앞에서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주목하며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세대가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복음의 가치를 높이 들고,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주님 앞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2. 북한을 위한 기도

“헛된 일을 꾸미는 자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김정은, 대한민국 향한 군사적 위협 고조시켜...한반도 정세 긴장

지난 연말 전원회의부터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로 강조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8-9일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면서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감히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주저 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 주문한 데서 더 나아가 군사적 위협을 한껏 고조시킨 것이다.

김 위원장이 우리나라를 일컬어 ‘주적’이라고 직접 단정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는 지난 2021년 10월 국방발전전략회의 연설에서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연말 전원회의 이후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우리 정권과 체제를 뒤집자고 악질적인 대결사만을 추구해온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이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해야 할 역사적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무기 전투기술 기재들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된 생산공정 확립과 부단한 생산능력 확장, 혁신적인 개건현대화 목표 실행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북한은 14일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사거리 3천-5천500km)을 발사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종합).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시편 2:1,11-12)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고린도 후서 10:4-5)

하나님, 남과 북이 서로를 주적으로 삼으며 군사적 긴장과 정치적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 주시고 북한에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는 중에 이것을 힘입어 세력을 얻으려는 북한 지도부의 계획이 얼마나 헛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의 탐심과 전쟁을 도구 삼아 수많은 영혼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탄의 간계를 멸하시고, 육신의 싸움과 견고한 반역의 진을 복음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옵소서. 위기의 정세 속에 북한의 주민들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피하여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가실 화평을 꿈꾸며 기도하는 교회로 서게 되길 기도합니다.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신령한 노래와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라”

더 다양해진 ‘대학 채플’...본질 잃지 않게 주의해야

‘소통·공감형 소그룹 채플’ 다양한 시도, 비신자 청년에게 복음 전할 기회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 청년에게 복음을 전파할 최적의 장소는 어디일까. 기독 대학의 채플은 이러한 선교 기회적 차원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 최근 기독 대학에서 채플의 다양화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이끄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명지대학교는 기존 예배에서 기독교 전인 교양수업으로 채플의 정의를 바꿨다. 기독교적 가치와 세계관, 미래 지도자로서 교양과 인격 함양을 위해 예배 개념을 넘어 선교적 차원에서 다양한 채플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명지대는 전통 방식의 일반 채플 외에도 찬양과 음악 위주의 비전 채플, 강연형식의 이야기 채플, 영어 공부를 곁들인 영어 채플 등을 개설했다. 기독 대학 역사상 처음으로 채플의 다양성과 함께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준 사례다.

숭실대학교도 채플에 여러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메시지·문화·학생참여·국제 채플을 비롯해 교수와 함께하는 채플, 소그룹 채플 등 다양하다. 이중 소그룹 채플의 경우 초개인화된 ‘MZ세대’에게 가장 반응이 좋다.

소그룹 채플은 한 명의 멘토와 7-8명의 학생이 하나의 그룹을 이뤄 진행된다. 멘토들은 다음세대 선교 차원에서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다. 멘토의 역할은 여러 문제에 관한 신앙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조성해주는 것이다.

목원대의 경우 채플의 방식을 7가지로 확대했다. 현재 전통 채플인 클래식 채플과 문화 채플, 소그룹 채플, 영어 채플, 유학생 채플, 온라인 채플, 라디오튜브 등을 진행 중이다.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총장과 교목실이 고안해 낸 것.

일각에선 이 같은 채플의 변화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채플의 본질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모 대학 학생 A군은 “예배로서의 채플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 아쉽다”며 “학교의 정체성과 설립 정신에 따라 직접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저 인문학 강의와 문화 공연 등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 신학대학 교수는 선교적 차원에서 다양한 시도는 긍정적이지만 채플의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기독교 학교 내 비기독교인 학생들의 비율이 많아지면서 채플에 대한 저항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차원으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면서도 “예배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신중하고 지혜로운 시도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이를 전도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채플을 영적 차원을 떠나 인성교육의 수준으로 보는 것에 대해 타협점이 되는 건 아닌지, 세속주의적 사고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에베소서 5:19-20)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에스겔 37:3-5)

하나님, 기독 대학들이 청년 복음화의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채플을 활용하고자 할 때, 주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는 채플을 주관하는 교목실과 기독 학생들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기뻐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다양한 변화와 시도가 주님의 뜻을 앞서지 않도록 겸손히 주를 의뢰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들려주고 싶은 소망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마른 뼈들처럼 생기를 잃은 청년들에게 복음이 들려져 그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일어서는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다음은 ‘대륙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